

농림부 축산경영과 조직내 양봉계 신설

- 기타가축에서 하나의 주요산업으로 자리매김
- 축산분야 품목대표조직으로도 선정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조직 내에 양봉계가 새로 신설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그동안 오리, 양록 등과 함께 기타가축에 포함되어 있던 양봉이 양돈양봉계로 별도 조직이 되었으며 이연섭 사무관이 담당한다. 그동안은 한우, 양돈, 낙농, 양계와 기타가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양봉산업이 일정규모 이상 성장하고 있고 잠재적인 가치도 인정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국양봉협회는 양봉계가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양봉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농림부가 육성하고 있는 축산분야 품목대표조직에 양봉을 추가하여 유통구조개선 및 대표조직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한우, 양돈 등 품목대표조직으로 육성하고 있는 25개 축종이외에 양봉, 오리, 양록 등 3개 품목을 추가하여 축산분야 대표조직으로 육성키로 했다.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은 각 품목의 대표조직을 선정하여 각종 정부 정책과 지원을 대표조직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한국양봉협회는 이번 품목대표조직에 추가됨에 따라 양봉 생산에서부터 수매, 유통까지 정책적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포 토



〈왼쪽부터 조균환 부회장, 배경수 회장, 신성범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한철 지리산양봉원대표, 최규칠 사무총장〉

한국양봉협회 배경수 회장은 최근 국회에서 신성범 한나라당 국회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을 만나 양봉업계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배경수 양봉협회장과 함께 조균환 양봉협회 부회장, 정한철 지리산양봉원대표, 최규칠 양봉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양봉업계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배경수 회장은 지속적으로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갖고 정책적으로 양봉업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양봉산업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관련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